

# 대학, 진정한 큰 학교로 거듭나라

허 병 두

승문고 교사, 교육개혁위원



대학?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학은 인생의 최대 목표이자 최고 가치이다. 대학에 관해 말할라치면 아이들의 눈은 어느 틈에 빛나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참고서에 학습지, 심지어 뇌파조절기까지 장만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학이 과연 있는가. 대학다운 대학,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대학은 몇이나 되는가. IMF 한파가 휩쓰는 요즘,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은 부채 비율 2000%에 문어발식 경영으로 파멸하는 죽벌 기업, 부실 기업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IMF 사태를 초래한 중대한 책임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학들에게 물어져야만 한다.

생각해 보라. 최근까지 우리의 대학들은 무슨 일을 해왔는가.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각 대학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입학생들을 고르려 애쓴다. 어느 학교인들 훌륭한 신입생을 받고 싶지 않을까마는 고만고만한 대학들끼리 그 동안 쌓아온 알량한 명성과 평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저 점수 좋은 학생들만 고르려 혈안이니 안타까운 것이다.

더구나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결사적으로 자기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엄청난 장학금은 물론 교수직까지 보장하겠다고 손길을 뻗치는 것은 뒷골목의 호객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실시 중인 수능 시험이 학생의 현재 실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그러한 대학의 노력은 물론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설령 그렇더라도 만일 입학 성적만으로 그만한 혜택이 부여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꼭 그만큼의 불공평을 경험해야 하지 않는가.

'맞아요. 맞아. 사실 수능 시험만으로는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죠. 그래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율전형, 좋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 우리가 뽑겠다는 것 당연하지요.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라 그래요. 교육부는 없애 버려야 한다면가요.'

대입 자율전형. 참 좋은 말이다. 대찬성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현재 대안 구실을 하고 있는 논술과 면접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 보자. 특히 논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답게 정착한 적이 없다. 그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 자리 잡힐 거라고? 그때까지 좀 참아야 한다고? 왜 참는 것은 항상 아이들 쪽인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옛날부터 되뇌어 오던 식으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단지 올해만 예로 들어 보자. 수능이 발표되고 학생들이 이제 논술만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논술 시험부터는 '고전(古典)' 중심으로 내겠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말이다. 그 방면의 최고의 '정전(正典)'들을 깊고 넓게 읽으라는 말은 지당하고 또 지당하다. 하지만 불과 시험 한 달을 앞두고 불쑥 던진 발언으로 당황한 학부모와 학생들, 심지어 교사들까지 '고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아 보려고 수선을 떨게 된 것은 확실히 IMF 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의 권위적인 행태이다.

용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대학 당국의 교육적 노력은 어떠한가. 논술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네 대학교육에 논술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는 대학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논술에는 모두 '도사'가 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왜 논술 심화 프로그램이 없는가. 대학이 논술 시험은 부과할 수 있어도 논술 교육은 시킬 수 없다니! 출제되는 문제를 들여다 보라. 고등학교 모든 졸업생들이 풀 수 있는, 풀어야 하는 문제들인지.

우리네 대학들의 병폐는 입학 이후부터이다. 학생들을 일단 뽑고 나면 그들이 공부를 하건말건 몇 번만 시험을 치르면 누구에게나 졸업장을 준다. 대학생은 자율적인 인간이라서 공부를 하라 말라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자기 책임을 엄밀하게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려울 때, 그 대학의 학생들은 공부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네 대학은 부실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똑같은 강의를 외워대는 교수들이 있어 고교로 찾아 온 제자들에게서 "대학교 강의가 고등학교 때 수업보다 못해요."라는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을 듣게 된다. 고교 시설보다 형편 없는 시설과 교구는 그만두고라도 모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는 지방대학생 제자들도 있다. 커리큘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왜 그 강의를 중요한지, 왜 유용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가르친다는 식이다.

이제 대학은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IMF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학이 종래의 모습으로 다시 활개쳐서는 곤란하다. 더 피할 곳도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 대학은 대학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자극하고 발전시켜 주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인재들만이 세계를 향하여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으며, 더불어 남과 함께 살아가는 참인간이 된다. 참인간을 키우는 큰 학교,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

---

허병두/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송문고 국어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2기 교육개혁위원, 교육정보화 추진 분과위원, 독서교육전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창조적 사고다』, 『글쓰기 열두마당』, 『열린 교육과 학교도서관』 등이 있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백석과 이용악의 시적 상상력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